

# ‘전용 경기장’ 생기고 분위기 좋고... 광주FC ‘첫 축포를 보라’



K리그 13R, 내일 수원삼성과 새 구장서 첫 경기...연승 도전  
펠리페·엄원상 등 발 빠른 측면자원...투혼의 수비 출격 준비

프로축구 광주FC가 새로운 안방에서 축포를 터트린다.

광주는 오는 25일 오후 8시 수원삼성과 2020 K리그1 13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익숙했던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치르는 첫 경기다.

엄원하던 축구전용구장에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광주는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전용구장 시대 개막의 의미를 더한다.

이날 광주 선수들은 팬들의 소중한 참여로 탄생한 ‘창단 10주년 유니폼’ 차림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한다.

새 출발선에 선 광주 선수단의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앞선 부산원정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후반 막판에 나온 김주공의 결정적인 두 차례 슈팅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아쉬움을 샀지만, 5경기만에 승점을 더하면서 순위 싸움에 재시동을 걸었다.

또 FA컵 포함 3경기 연속 4실점으로 흔들렸던 수비도 모처럼 무실점을 이루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전력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지난 15일 강원FC와의 FA컵 4라운드에서 기회를 얻은 한희훈과 이순민이 부산 원정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을 선보이면서 무실점에 기여했다.

퇴장 징계에서 복귀한 이민기와 여봉훈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이룬 수원은 득점왕 타가트, 김민우, 염기훈, 김건희 등 수준급 전력을 갖춘 K리그 명문팀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원은 2승 4무 6패(승점 10)로 9위 광주(3승 2무 7패·승점 11)에 이어 10위에 올라있다.

지난 17일 이임생 감독이 자진사퇴했고, 이어진 성남FC와의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광주는 수원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수원전 연승 도전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난 5라운드 대결에서 펠리페의 시즌 마수걸이 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펠리페와 엄원상, 김정환, 윌리안 등 발 빠른 측면자원을 앞세워 전용구장 첫 승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전남드래곤즈도 상승세를 이어 ‘무승 징크스’ 탈출에 도전한다.

전남은 26일 오후 6시 경남FC를 상대로

2020 K리그2 1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앞선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2승 1무로 상승세를 탔다. 분위기를 이어 ‘경남전 무승 징크스’ 깨기에 나선다.

경남전에서 전남이 승리를 거둔 것은 2014시즌 14라운드까지만이다. 이후 전남은 6번의 맞대결에서 3무 3패를 기록했다. 앞선 개막전에서도 경남을 만나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남은 FA컵 기억을 살려 경남전 승리를 노린다. 전남은 지난 1일 경남과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으며 4-0 대승을 거뒀다.

물론 이종호의 발끝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종호는 지난 15일 전북현대와의 FA컵 16강 경기에 이어 지난 부천전까지 두 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퇴장 징계 중인 줄리안의 공백을 지웠다. 하승운도 FA컵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등 화력이 뜨겁다.

무엇보다 11경기를 6실점으로 막은 수비가 든든하다.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전남이 2209일 만에 경남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가 2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삼성과 개장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 6월 7일 수원 원정경기에서 골을 넣고 환호하는 펠리페. <광주FC 제공>

## 전남체고 조민재 전국춘계남자역도 3관왕



역도 차세대 스타 조민재(전남체고 1년·사진)가 올시즌 첫 대회에서 3관왕과 MVP를 차지했다.

조민재는 23일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끝난 제68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남고부 61kg급에서 인상 111kg, 용상 143kg, 합계 254kg을 들어올려 3관왕에 올랐다. 조민재는 남고부 최우수선수상도 받았다.

지난해 전국소년체전 역도 3관왕과 MVP를 거머쥔 조민재는 이번 대회에서도 변함없는 실력을 선보였다.

정현목(전남체고 3년)은 인상 103kg, 용상 133kg, 합계 236kg으로 은메달 3개

를 획득했다.

남중부 81kg급에 출전한 김현호(완도중 3년)는 인상 108kg, 용상 117kg, 합계 225kg으로 3관왕, 남고부 109kg 이승현(전남체고 3년)은 인상 155kg, 용상 195kg, 합계 350kg으로 모두 3관왕이 됐다.

남중부 89kg급 문찬우(완도중 3년)도 인상 95kg, 용상 126kg, 합계 221kg으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고, 남고부 109kg급 정대관(전남체고 3년)도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의 어려움과, 늦어진 시즌 개막으로 인해 선수들이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전남 역도의 자긍심을 드높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혼돈의 EPL, 최종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맨유, 웨스트햄과 1-1 무승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 티켓을 거머쥔 프리미어리그(EPL) 클럽은 최종전에서야 모두 가려지게 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9-2020시즌 EPL 37라운드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1-1로 비겼다.

이러 리버풀 안필드에서는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홈팀 리버풀이 첼시를 5-3으로 제압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4위권 진입 경쟁을 벌이는 맨유와 첼시, 레스터 시티 세 팀이 37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레스터 시티는 지난 20일 토트넘 홋스퍼에 0-3으로 졌다.

이날 무승부로 승점 1점을 보탠 맨유는 승점 63(골득실 +28)을 기록하며 종전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첼시는 4위(승점 63·골득실 +13), 레스터 시티는 5위(승점 62)로 한 계단씩 내려앉았다.

하지만 최종전 상대가 공교롭게도 레스터 시티여서 방심할 수 없다. 27일 자정 레스터 시티 홈에서 열리는 최종전 결과에 따라 챔피언스리그 주인공이 결정된다.

맨유가 최종전에서 ‘빠듯’한다면 올 시즌 막판 보여주고 있는 13경기 무패(8승 5무)의 분투는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과만 남기게 된다.

첼시 역시 마지막 울버햄프턴과의 홈 경



리버풀 선수들이 22일(현지 시간) 런던 안필드 스타디움에서 프리미어 리그(EPL)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자축하고 있다. 리버풀은 이날 첼시를 5-3으로 꺾고 30년 만에 EPL 우승을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기에서 승리해야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장담할 수 있다.

맨유는 전반 47분 미카일 안토니오의 페널티킥에 선제 실점했다. 앞서 폴 포그바가 핸드볼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을 헌납했다.

그러나 맨유는 후반 6분 ‘신성’ 메이슨 그린우드(19)가 앙토니 마르시알의 도움

으로 동점골을 뽑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로써 그린우드는 2012-2013시즌의 로멜루 루카쿠(14골), 2004-2005시즌의 웨인 루니(11골)에 이어 3번째로 EPL에서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10대 선수가 됐다.

첼시는 리버풀에 전반전 1-3으로 뒤져

패색이 짙었다.

후반전 태미 에이버럼, 크리스천 풀리식이 추격골을 넣었으나 리버풀 역시 피르미누와 알렉스 옥슬레이드-체임벌린이 득점하며 따라잡았다.

리버풀의 트랜트 알렉산더-아널드가 1골 1도움을 올리며 5-3 승리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연합뉴스

## 맹견 맞서 여동생 구한 6세 소년 WBC 명예 챔피언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프로복싱 기구인 세계복싱평의회(WBC)가 맹견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 여동생을 구한 여섯살 소년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WBC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사이언에 사는 브리지 워커에게 명예 챔피언 벨트를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워커는 지난 9일 이웃집 독일산 셰퍼

드가 내살의 여동생에게 달려들자, 맨몸으로 여동생을 꺼안아 보호한 뒤 여동생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내달렸다.

이 과정에서 셰퍼드에 얼굴과 머리를 크게 물린 워커는 상처 부위를 90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워커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동생을 구한 이유에 대해 “(맹견에 물려)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동생이 아닌) 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WBC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워커를 ‘지구상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라고 칭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반도
2관	반도, 블루 아워
3관	반도, 고 피쉬
4관	알라딘
5관	반도
6관	반도
9관	반도,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슈퍼 레이스, 에베레스트
7관	씨네커풀 알라딘, 블루 아워, 팬데믹
8관	씨네커풀 #살아있다, 소리꾼, 결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 음악회**

GAC기획공연 - FOCUSV  
동화음악회-책으로 꿈을 꾸는 돼지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5**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